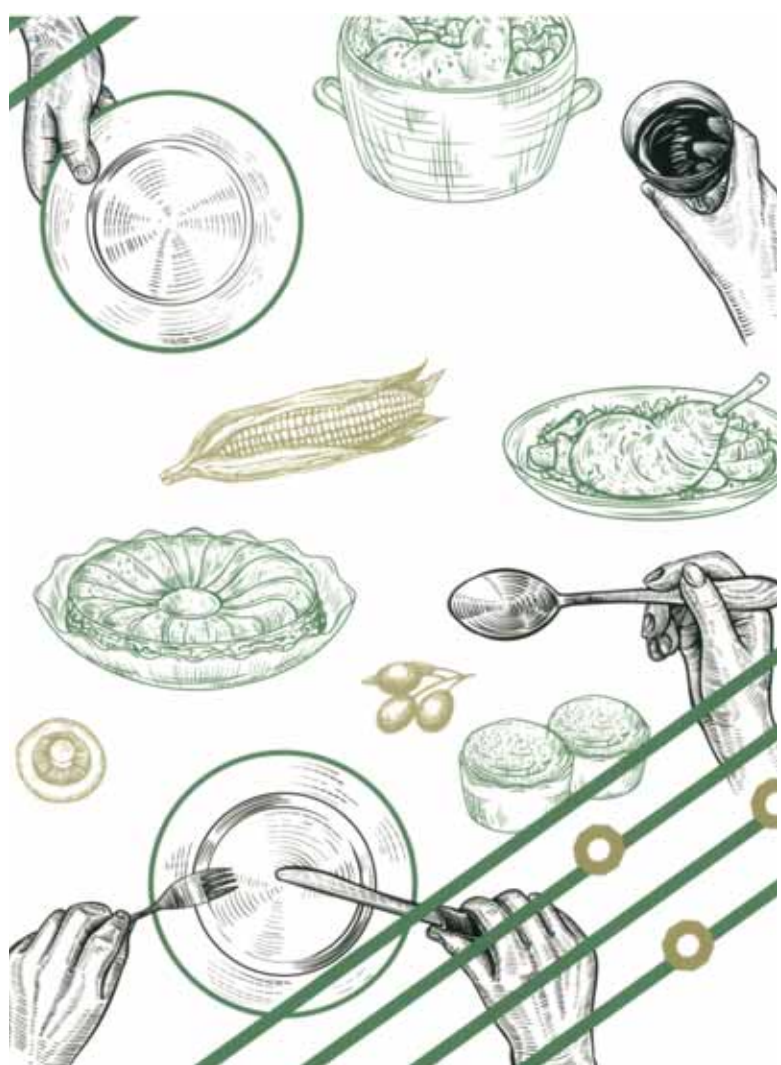


“우리가 먹는 모든 음식은 다른 존재의 몸이다”



저자는 음식의 역사성과 공동체성 뿐 아니라 음식으로 비롯된 다양한 문제를 깊이 있는 시각으로 들여다 본다. (지오북 제공)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푸드 에콜로지

김원중 지음

사람들은 식사 시간이면 무엇을 먹어야 할지 고민한다. 어떻게 먹어야 할지도 중요한 관심사다. 삶 가운데 음식만큼 중요한 부분도 없다. 살기 위해 먹는 것이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어느 때는 분간조차 하기 힘들다.

그 뿐인가. 과거에 먹은 음식은 현재의 자신을 규정한다. 나아가 오늘 먹는 음식은 내일의 나를 만든다. 음식이 한 개인의 정체성을 규정한다는 것은 음식이 존재와 세계를 연결하는 통로이기 때문이다. 개인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와 국가적인 정체성으로까지 확대되기도 한다.

음식과 섭생의 문제를 7명 작가의 작품을 통해 비교 분석한 책이 나왔다. 성공관대 영문과 김원중 교수가 펴낸 ‘푸드 에콜로지’는 음식의 역사성과 공동체성뿐 아니라 음식으로 비롯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룬다. ‘음식과

계리 스나이더·김지하·백석·웬델 베리·한강 등

동서양 작가 7인의 작품 통해 음식·섭생 조명

“지구라는 식탁위에 우리 또한 주인이자 손님”

섭생의 생태학’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책은 어떤 음식도 “땅과 물, 공기의 도움 없이는 생산될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에 토대를 둔다.

저자는 음식과 섭생의 문제를 7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비교하고 분석한다. 텍스트에 소개되는 작가들은 저마다 음식과 섭생에 관한 나름의 관점을 견지하는 이들이다. 계리 스나이더, 김지하, 백석, 웬델 베리, 루스 오제키, 한강, 마이클 폴란 등은 독특한 문학세계를 구축한 문인들이다.

먼저 ‘생태시인’으로 알려진 계리 스나이더는 섭생의 문제를 우주적 차원으로 확대한다. 불교와 인디언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는 “나는 먹이사슬 어디에 위치하는가”를 평생에 걸쳐 탐구했다. ‘맛의 노래’라는 시에는 인간과 자연의 바람직한 관계가 집약돼 있다. 저자는 스나이더에게 있어 섭생은 “서로가 서로를 먹여주는 사람의 행위이자 하나의 의례”라고 규정한다.

동양사상의 영향을 받은 김지하 시인 또한 섭생의 의미를 종교적이고 철학적 관점에서 들여다본다. 한 톨의 쌀 생산에 들어간 자연의 섭리와 이치를 숙고하며 섭생이 우

주와 연결된 행위임을 인식한다. “밥은 하늘입니다”라는 ‘밥’의 시는 밥의 소중함과 신성함이 투영돼 있다.

저자는 김지하의 인식은 “밥은 공동체적으로 생산되고 공동체적으로 소비된다는 점을 들어 밥의 독점을 세상 모든 약의 근원으로 파악한다”며 “밥이 올라오는 제사와 식사를 둘 다 신성한 의례라고 규정”한다고 본다.

백석은 유독 작품에서 음식을 많이 언급했던 시인이다. 110여 편의 시에서 음식에 대한 단상을 펼칠 만큼 음식에 관한 많은 시를 썼다. 저자는 백석에게 음식은 인간과 자연, 정신과 육체를 통합하는 매개체라고 설명한다. 백석의 시 ‘국수’는 준비하는 과정과 먹는 행위 과정에 있어 음식의 공동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한다.

미국의 ‘미친 농부’이자 시인인 웬델 베리의 사유는 땅, 농업, 음식, 인간이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에 닿아 있다. 시인은 섭생의 즐거움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생산됐는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말한다. 저자는 그의 시 ‘식후기도’를 매개로 우리가 오늘 섭취하는 음식이 곧 지구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

을 강조한다.

저자는 인간이 지난 음식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고기는 바로 인간이 자연을 통제하려는 욕망이 구현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강의 대표 소설 ‘채식주의자’는 음식의 성정치학, 남성중심문화의 폭력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저자는 ‘채식주의자’는 섭생이 기호의 문제를 넘어 문화적, 정치적, 문화적 이해와 이데올로기가 존재한다고 본다.

책을 읽고 나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바뀌어야 함을 인식하게 된다. 저자의 말대로 음식과 섭생은 종교적, 철학적인 동시에 인류학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 즉 그것이 온 우주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다른 존재의 몸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지구라는 식탁 위에 우리 또한 주인이자 손님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모든 음식을 겸손과 감사로 대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식사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오북·2만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약력

소설가인 박성천 기자는 전남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국문과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남대에 출강중이며 소설집 ‘메스를 드는 시간’ 등 다수의 책을 펴냈다.

김개영 지음 ‘겨울 사원’

뒤영진 삶과 죽음, 훼손된 신체 그리고 세상의 불화... 2013년 ‘문예중앙’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며 등단한 소설가 김개영의 소설집 ‘겨울 사원’은 산산이 부서진 삶의 장면들이 등장한다.

소설 속 인물들은 우연한 사고로, 자살 혹은 병으로 죽어 간다. 작가는 일곱 편의 소설을 통해 우리 모두가 즐비한 죽음을 사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작가는 모른 척 하고 싶지만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의 잔혹한 운명을 내밀하게 들여다본다.

표제작 ‘겨울 사원’에서 비극은 뚜렷한 인과도 없이 난데없이 닥친다. ‘그’와 동성애자 파키스탄인 ‘아자즈’는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한 서로의 처지에 동질감을 느끼지만 아자즈는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가족들로부터 폭행을 당한다.

일곱 편의 수록작에는 어딘가 세상과 불화하는 인물들이 등장한다. 세상과 접한 모든 면이 고통인 인물들, 때문에 불화의 증거는 고통의 감각으로 전이된다. ‘틈’에서 가정 폭력에 시달리는 ‘나’는 말더듬증을 앓는다. 사고를 당해 아이를 잃고 장애를 지니게 된 아내와 살아가는 ‘개와 늑대의 시간’ 속 남자는 안구건조증에 시달린다.

이처럼 작가의 작품은 운명 가운데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어두운 전망을 담고 있다. 맞닿아 보려고 뺨은 손은 어긋나고 만다.

양운의 평론가는 작품해설에서 “작가의 불화는 그 자체로 어떤 유비도 허락하지 않지만 모든 인접성을 차단했을 때 드러나는 저 격렬한 반응들만은 닮았다”고 평한다.

(민음사·1만2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나바 신이치로 지음, 김영주 옮김 ‘불평등과의 싸움’

경제 불평등은 일부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맞닥뜨린 현실이다. ‘세계 부와 소득 데이터베이스’는 ‘2018세계불평등보고서’를 통해 소득과 부의 불평등 정도가 개별 국가 수준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서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얘기다.

1980년 이후 2016년까지 세계 상위 1% 부자들이 가져가는 소득과 부의 비중은 늘어난 반면, 하위 50% 소득은 정체돼 빈부격차가 날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물론 우리나라 또한 예외는 아니다. 올해 한국노동연구원 발표된 ‘2016년가지의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근로소득 불평등은 개선되고 있지만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 불평등도는 심화됐다.

메이지가쿠인 대학교 사회학부 교수인 이나바 신이치로가 펴낸 ‘불평등과의 싸움’은 18세기 루소에서 21세기 파케티까지 260년간의 불평등 논쟁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파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출발하지만 단순히 해설서 수준을 넘어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비판하고 경고해왔는지를 사상과 이론을 토대로 살펴본다.

“인간 불평등 기원론”의 장 자크 루소와 ‘보이지 않는 손’의 애덤스미스에서 출발해 카를 마르크스, 근대 경제학, 파케티 사상의 기초를 형성한 ‘불평등 르네상스’ 기간, 현대에 이르는 불평등의 원인이 담겨 있다.

경제학자들의 이야기는 우리 삶을 가장 예민하게 반영하고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책은 경제학을 이론으로뿐 아니라 삶과 직접 관련 있는 학문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아날로그·1만4000원)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김석현·정은영 지음 ‘블랙리스트가 있었다’

‘블랙리스트’, 이른바 ‘예술가 지원 배제 명단’을 일컫는 말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 기관이 ‘좌파’, ‘야당 지지’, ‘세월호 시국 선언’ 등이 이유로 9473명의 문화예술인을 예술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한 사건이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제21조와 22조를 통해 언론과 출판,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헌법을 수호해야 할 국가가 기관을 동원해 헌법 가치를 훼손한 중대 사건이라 규정할 수 있다.

‘블랙리스트가 있었다’는 각각 문체부와 국회에서 일하며 블랙리스트 사건을 겪었던 김석현, 정은영 두 저자가 내부자의 눈으로 당시의 상황을 복기한 책이다. 정치권력의 비호 속에 은밀히 실행되었던 블랙리스트는 2016년에서 2017년으로 넘어가는 촛불 정국 속에서 그 실체를 드러냈다. 문체부 장관 두 명, 차관 두 명이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 하지만, 책임자 처벌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블랙리스트 사건의 진상은 여전히 조사 중이며 이 일이 불러일으킨 사회적 파장은 현재 진행형이다. 블랙리스트 사건은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헌법과 법률이 지배하는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는 뼈아픈 질문을 남겼다.

저자들은 공무원이자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다시는 이러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담아 이 책을 썼다. 또 부족한 자의 고색한 변명이 아닌 고통과 번민을 짊어진 자의 간절한 목소리로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문화예술 행정이 가야 할 길을 모색한다.

(위즈덤하우스·1만6000원)

/ 전은경기자 ej6621@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H.M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 시스템!!
최적의 방수 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 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